

초등학급경영을 위한 교사의 음악 활용 현황 및 인식

성수진*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생활 및 학습 지도 시 음악사용 현황과 효과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를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현직 초등교사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비답임 음악전담교사 4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1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급경영 시 생활 지도 시에 비해 학습 지도 시의 음악 활용도가 높았다. 교사들은 생활 지도 시에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동요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학습 지도 시에는 동기 유발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음원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저학년 담임교사일수록 생활 및 학습 지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음악을 활용하였고, 고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학습 지도 중심으로 음악을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음악 효과에 있어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음악선곡에 있어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음악 활용 방안에 대한 연수나 자료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수업 이외에 학생 관리와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들의 음악 활용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생활 지도, 학습 지도, 음악 활용, 초등교사

* 광명북초등학교 교사, 음악중재전문가(KCMT) (ppussu@naver.com)

I. 서론

교사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와 직무를 수행하는 학교 조직의 구성원이다. 교사의 업무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교 행정 활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급경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Park, 2008). 교사의 업무를 학생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보면 필수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되며, 필수적인 업무에는 교수·학습활동과 학생지도활동이 포함된다(Jeong, Kim, Kim, & Kim, 2012).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적인 활동이므로 업무 간 경계나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들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Kim, 2014).

초등학교 교사는 과목 담당 교사이면서 학급담임의 역할을 맡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차이가 있다(You, 2013). 초등 교사의 업무 내용에는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학교생활에 대한 지도를 하며, 행정 및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 등이 포함되어(Kang, 2010) 업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업무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노동의 강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며, 각 영역에서 발휘해야 하는 전문성 신장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Kim, 2014).

다양한 업무와 생활 지도 및 학습 지도를 효율적으로 병행하기 위해 교사들은 직무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구성원 간 협의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Kim & Kim, 2015). 초등학교 교사 502명을 대상으로 연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활 지도 및 상담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급경영, 교과에 대한 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연수에 대한 인식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Kim, 2011).

직무연수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및 교과 지도를 위해 인성교육 핵심 교과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생활 지도와 교과 지도가 통합되어 진행된다는 것이다(Cho, 2015). 교과교육을 통해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한 인성교육의 핵심 역량을 가르친다. 인성교육 핵심교과는 도덕과 사회, 미술, 음악이 있는데 그 중에 음악은 교사뿐 아니라 제공받는 학생들에게도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친밀한 소재이다.

음악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기관에서도 교우관계 개선과 기본생활 습관 정착을 위해 음악을 제공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 예로 학교 폭력 근절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 캠페인 송을 제작하고 알렸으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캠페인을 열고 노래를 통해 아동에게 손씻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교육하였다(Ministry of Justice, 2012). 또한, 수업 내 음악사용은 교과를 지도하고, 학습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교과 내용 전달 목적으로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래를 활용한 영어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켜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어휘 능력을 향상시켜, 영어·음악 통합수업이 영어 교수법으로 효율적임을 보여주었다(Kim & Park, 2012). 특히 음악과 수학을 통합하여 수업자료를 개발하거나 적용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는 가드너(Gardner)의 지적 능력 영역에서 음악과 가장 가까운 지능을 수학으로 여긴 이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론을 근거로 수학·음악 통합수업을 진행하며 수학 지능과 음악 지능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두 지능은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Park¹, 2014). 또한, 수학영역의 수와 연산,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을 음악과 통합한 수업자료가 개발되었으며(Park², 2014), 초등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수학적 공간개념 학습을 위해 음악·수학 수업 모형이 개발되었다(Bae, 2014). 뿐만 아니라, 음악은 학습부진아의 단기기억력 향상에도 사용되었으며(Chong, 2004),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Park, 2013).

위에 제시한 연구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들로 대부분 학습과 관련하여 음악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학습 및 생활 지도에 도움을 주는 음악의 효과성은 입증되었으나, 교과 수업 이외에 음악이 사용되는 정도와 음악사용에 대한 현직 교사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음악의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음악 수업 외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 및 학습 지도 시 음악 활용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학급경영을 위해 음악사용 현황을 밝히고, 효율적인 학급경영의 도구로서 음악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 현장 내 음악을 사용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음악사용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할 점을 찾을 수 있으며, 향후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및 직무연수의 방향에도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내 음악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생활 및 학습 지도에 사용하는 음악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를 연구자가 편의표집하였다. 연구에 대해 안내한 후 참여에 동의한 초등학교 교사 190명에게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123부 중 교과 특성 상 음악이 수업자료가 되는 음악 전담교사 4명의 자료를 제외한 119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음악 활용 실태 및 음악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응답 교사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문항과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 활용 실태조사, 음악사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으로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음악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학급운영을 생활 지도와 학습 지도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 문항을 분류하였고 그에 따른 인식에 대해 연계하여 설문하도록 순서를 배열하였다.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항은 초등학교 교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생활 지도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Lim, 2008), 학습 지도는 교사의 효율적인 수업지도를 위한 하위 항목을 참고하였다(Lee, 2000). 초등학교 교사는 학급 운영 시 음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그에 따른 인식을 다음 <Table 1>과 같이 분류 및 작성하였다.

<Table 1> Category of Questionnaire on Music Use and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 Category | Subcategory | Item number |
|--|----------------------|------------------------|
| Individual characteristics | Individual factor | 1, 2, 3, 4, 5, 6, 7 |
| | Environmental factor | 8, 9, 10, 11 |
| Current music use and perception toward music use during classroom | Classroom management | II-1, 2, 3, 4, 5, 6, 7 |
| | Classroom teaching | III-1, 2, 3, 4, 5, 6 |

3. 자료 수집

본 조사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초등학교 교사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우편과 직접방문, 스쿨 메신저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설문 사이트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190부의 설문지 중 12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64.7%였다. 이 중 학생의 생활 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음악수업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경우인 음악전담교사의 답변 4부를 제외한 119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의 수치화된 분석을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년에 따른 생활 및 학습 지도 시 느끼는 곤란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생활 지도와 학습 지도에 음악 활용의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생활 지도와 학습 지도에서의 음악 활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그리고 개인적 특성 중 6개월 이상 음악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와 음악 활용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생활 및 학습 지도 시 음악 활용 현황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생활 및 학습 지도 시 음악 활용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Table 2>와 같이 개인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성별은 남자 19.3%, 여자 80.7%로, 여자가 많았으며, 교직경력은 10년 미만 51.3%, 10년 이상-20년 미만 32.5%로 경력이 낮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았다. 전담교사를 제외한 담임 학년별 설문 참여율은 4학년이 16.8%로 가장 높았고, 6학년이 10.9%로 가장 낮았다. 학부를 졸업한 후 6개월 이상 음악 관련 동아리에 참여했거나 음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7.1%, 없는 경우가 52.9%였다.

생활 및 학습 지도 곤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개인적 특성은 담임 학년, 경력으로 나누었다. 생활 및 학습지도 곤란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1점 ‘매우 어렵다’, 2점 ‘조금 어렵다’, 3점 ‘보통이다’, 4점 ‘어렵지 않다’, 5점 ‘전혀 어렵지 않다’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생활 및 학습 지도 곤란도를 조사한 결과 생활 지도의 어려움은 평균 1.55로 학습 지도 시 느끼는 어려움 2.13에 비해 낮았다. 또한 생활 지도가 어렵다고 대답한 사람은 총 68명으로 전체의 57.2%에 해당하지만 학습 지도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은 34명으로 전체의 28.6%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습 지도에 비해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생활 및 학습 지도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력과 지도 시 느끼는 어려움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 Variable | | <i>n</i> (%) |
|---|----------------------------------|--------------|
| Gender | Male | 23 (19.3) |
| | Female | 96 (80.7) |
| Teaching experiences | 0-10 years | 60 (50.4) |
| | 10-20 years | 40 (33.6) |
| | 20-30 years | 15 (12.6) |
| | Over 30 years | 4 (3.4) |
| The grade of students in charge | 1st | 18 (15.1) |
| | 2nd | 17 (14.3) |
| | 3rd | 14 (11.8) |
| | 4th | 20 (16.8) |
| | 5th | 14 (11.8) |
| | 6th | 13 (10.9) |
| | Teachers of specialized subject* | 23 (19.3) |
| Specified major | Music-related | 11 (9.2) |
| | Nonmusic-related | 108 (90.8) |
| Music training over 6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eacher training | Yes | 56 (47.1) |
| | No | 63 (52.9) |

* Teachers of specialized subject are in charge of different grade of students depending on school system.

담당 학년에 따른 생활 및 학습 지도 어려움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생활 지도 어려움의 경우 담당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학습 지도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참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났던 학습 지도 시의 어려움에 대하여 Scheffe방법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학년 담임교사와 고학년 담임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른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고학년을 담당하는 교사가 더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생활 지도를 할 때 음악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72.3%가 음악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학습 지도를 위해서는 82.4%가 음악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Table 3> Respondents' Perceived Difficulty Depending on In-charged Student Groups

| | Lower grade student group (n = 49) | | Higher grade student group (n = 47) | | Specialized subject group (n = 23) | | p |
|----------------------|---------------------------------------|------|--|------|---------------------------------------|------|------|
| | M | SD | M | SD | M | SD | |
| Classroom management | 2.76 | 1.09 | 2.38 | 1.21 | 2.48 | 1.08 | .26 |
| Classroom teaching | 3.43 | 0.94 | 2.81 | 1.06 | 3.17 | 0.94 | .01* |

* p < .05

<Table 4>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노래 장르 선택에서 생활 지도 시 사용하는 음악과 학습 지도 시 사용하는 음악에 차이를 보였는데, 생활 지도 시에는 동요 32%, 대중가요 24.2%의 순으로 많이 사용된 반면, 학습 지도 시에는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음원이 32.9%로 가장 높았고, 동요 27.6%가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한 음악 활동의 형태를 보면 두 영역 모두 노래 부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감상이 다음 활동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활동별 활용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생활 지도 시 노래 부르기 30.3%, 감상 26.1%로 두 활동 간의 활용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학습 지도 시에는 노래 부르기 56.3%, 감상 19.3%로 노래 부르기 활동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Genre of Music and Type of Music Activities Used During Classroom Management and Classroom Teaching

| | Classroom management (n = 86) | Classroom teaching (n = 98) |
|--|----------------------------------|--------------------------------|
| | n (%) | n (%) |
| Genre of music* | | |
| Korean popular music | 43 (24.2) | 31 (16.8) |
| Children song | 57 (32.0) | 51 (27.6) |
| Korean traditional music | 16 (9.0) | 14 (7.6) |
| Western popular music | 15 (8.4) | 15 (8.1) |
| Music composed for educational purpose | 32 (18.0) | 61 (33.0) |
| Others | 15 (8.4) | 13 (7.0) |
| Type of music activities | | |
| Singing | 36 (30.3) | 67 (56.3) |
| Listening | 31 (26.1) | 23 (19.3) |
| Instrument playing | 12 (10.1) | 5 (4.2) |
| Others | 5 (4.2) | 1 (0.8) |

* Multiple response are allowed.

두 영역의 사용 목적은 각 영역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설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있다. 생활 지도 시 학생의 긍정적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 사용이 33.8%로 가장 많았고, 성격 지도를 위한 인성교육이 20.0%, 학교 행사활동의 참여를 위해 17.5%, 기본생활습관 지도 10.4%, 기타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 지도 시에는 동기유발 자료로 39.5%의 응답자가 사용하였으며, 학습 내용 암기를 돕기 위해 23.0%, 집중력 향상을 위해 18.0%의 응답자가 음악을 활용하였다.

<Table 5> Purpose of Music Use During Classroom Management and Classroom Teaching

| During classroom management (n = 86) | | Classroom teaching (n = 98) | |
|---|-------------|---|-------------|
| Purpose of music use | n (%) | Purpose of music use | n (%) |
| Enhancing positive emotions of students | 81 (33.8) | Using it as recourses for eliciting motivation for learning | 79 (39.5) |
| Using it as materials for guiding personality development | 48 (20.0) | Using it as materials for facilitating the process of memorizing the information to be taught | 46 (23.0) |
| Using it as background music for events at school | 42 (17.0) | Increasing attention | 36 (18.0) |
| Using it as instructional materials for basic life habits | 25 (10.4) | Using it as materials for assisting the understanding of students during classes | 30 (15.0) |
| Improving peer relationship | 17 (7.1) | Others | 9 (4.5) |
| Using it as instructional materials for safety education | 10 (4.2) | | |
| Using it as instructional materials for career education | 4 (1.7) | | |
| Others | 13 (5.4) | | |
| Total | 240 (100.0) | Total | 200 (100.0) |

* Multiple responses are allowed.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음악 활용 여부를 분석했을 때 <Table 6>과 같이 생활 및 학습 지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음악을 활용하는 집단의 경력이 활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교사 개인의 음악 활동 시간도 음악을 활용한 집단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 및 학습 지도 시 느끼는 곤란도는 음악을 활용하지 않은 집단이 음악을 활용하는 집단에 비해 어려움을 더 크게 느꼈다.

<Table 6> Use of Music Depending on the Individual Factor

| Variables of participants | Music use during classroom management | | <i>t</i> | <i>p</i> | Music use during classroom teaching | | <i>t</i> | <i>p</i> |
|---|---------------------------------------|------------------------|----------|----------|-------------------------------------|------------------------|----------|----------|
| | Yes (<i>n</i> = 86) | No (<i>n</i> = 33) | | | Yes (<i>n</i> = 98) | No (<i>n</i> = 21) | | |
| Teaching experiences (yrs) | 11.35 (8.83) | 9.69 (7.42) | 0.96 | .34 | 11.13 (8.61) | 9.82 (7.85) | 0.64 | .52 |
| Duration of personal music experiences (min) | 202.15 (186.80) | 173.94 (163.82) | 0.76 | .45 | 189.74 (180.53) | 215.71 (183.13) | -0.60 | .55 |
| Perceived difficulty during intervening with students | 3.36 (1.16) | 3.67 (1.08) | -1.32 | .19 | 2.82 (1.05) | 3.10 (0.83) | -1.14 | .26 |

담당 학년별 음악 활용률을 확인한 결과 생활 지도 영역에서는 1학년 담당 교사의 88.9%, 3학년 담당 교사의 78.6%, 2학년 담당 교사의 76.5%가 음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지도 영역에서는 4학년 담당 교사의 경우 90.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음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1학년 담당 교사의 88.9%, 2학년 담당 교사의 88.3%, 3학년 담당 교사의 85.7%가 음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지도 영역에서는 저학년 담당 교사에게서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나, 학습 지도 영역에서는 모든 학년이 약 70.0% 이상의 음악 활용률을 보이며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이상 음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음악 활용률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에 제시된 것처럼 생활 지도와 학습 지도 시 음악 활용률과 6개월 이상의 음악 교육 유무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Primary Teachers' Experiences of Music Training Over 6 Months and the Current Use of Music During Classroom Management and Classroom Teaching

| | | Music use during classroom management | | <i>p</i> | Music use during classroom teaching | | <i>p</i> |
|----------------|-----|---------------------------------------|-----------|----------|-------------------------------------|-----------|----------|
| | | Yes | No | | Yes | No | |
| Music training | Yes | 45 (52.3) | 11 (33.3) | .060 | 48 (49.0) | 8 (38.1) | .360 |
| | No | 41 (47.7) | 22 (63.6) | | 50 (51.0) | 13 (61.9) | |

2. 음악 활용에 대한 인식

생활 및 학습 지도 시 음악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음악 활용에 대해 1점 ‘매우 비효과적’, 2점 ‘비효과적’, 3점 ‘보통’, 4점 ‘효과적’, 5점 ‘매우 효과적’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생활 지도와 학습 지도 시 음악 활용 유무에 따른 음악에 대한 인식 차이는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활 지도 시 음악을 활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음악의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음악사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1점 ‘매우 어려움’에서부터 5점 ‘매우 쉬움’으로 표기된 5점 Likert를 사용해 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음악을 활용해 본 경험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 정도는 생활 지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p = .004$), 학습 지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7$). 이는 음악 활용 경험이 없는 그룹이 경험이 있는 그룹에 비해 어려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적인 도움의 필요성과 연수의 필요성, 연수 참여 의사는 음악활용 유무에 상관없이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평균 인식 정도가 필요하다에 해당하는 4점보다 높아, 교사 대부분이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8> Perception of Music Use During Classroom Management and Classroom Teaching

| | Music use during classroom management | | <i>t</i> | <i>p</i> | Music use during classroom teaching | | <i>t</i> | <i>p</i> |
|--|---------------------------------------|------------------------|----------|----------|-------------------------------------|------------------------|----------|----------|
| | Yes (<i>n</i> = 86) | No (<i>n</i> = 33) | | | Yes (<i>n</i> = 98) | No (<i>n</i> = 21) | | |
| | <i>M</i> (<i>SD</i>) | <i>M</i> (<i>SD</i>) | | | <i>M</i> (<i>SD</i>) | <i>M</i> (<i>SD</i>) | | |
| Perceived effects of music use | 4.15 (0.62) | 3.66 (0.65) | 3.76 | .000*** | 4.33 (0.57) | 3.48 (0.60) | 6.14 | .000*** |
| Perceived difficulty in using music | 2.76 (0.73) | 2.30 (0.77) | 2.97 | .004** | 3.09 (0.84) | 2.57 (0.51) | 2.73 | .007** |
| Needs for assistance from the system for effective music use | 4.32 (0.87) | 3.48 (0.83) | 1.74 | .158 | 3.90 (0.65) | 3.67 (0.80) | 1.42 | .158 |
| Needs for relevant training for effective music use | 4.07 (0.78) | 4.09 (0.52) | -0.14 | .680 | 4.02 (0.67) | 3.95 (0.74) | 0.41 | .680 |
|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raining for effective music use | 4.31 (0.57) | 4.18 (0.58) | 0.12 | .270 | 4.29 (0.50) | 4.10 (0.54) | 1.57 | .119 |

** $p < .01$, *** $p < .001$

3. 기타 및 서술형 답변에 대한 내용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시, 음악을 활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그 이유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강화와 지도 시 효율적인 지침의 전달을 위한 음악 활용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활 지도로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다스리기에 좋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의 음악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학습지도 시 음악과 활용 관련한 의견에서도 나타났는데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유발과 반응수준의 향상 등이 기술되었다. 또한 즐겁게 음악 활동에 참여하며 무의식적인 반복을 통해 자연스러운 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며,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음악사용의 어려운 점으로는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해 제시된 노래가 반복되다 보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학생들이 노래를 개사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음악을 찾는 것이 어려워 한정된 음원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도움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노래 제목과 음원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음악 활용 방안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례나 방법 제시를 위한 연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이유는 상황마다 적용될 음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연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교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알아야 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연수 자료 제작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생활 및 학습 지도에서 음악 활용 현황과 음악 활용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학급경영을 위해 음악 활용에 대한 필요도와 사용률이 높은 것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저경력 교사임을 고려할 때 향후 교사 재교육 및 연수의 방향을 정할 시에 학급 경영에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급 경영에서의 높은 음악 사용률은 음악을 통한 지도가 수월함을 의미하며 생활 및 학습 지도 시 매체 활용이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Lee, Choi & Song 2010).

둘째, 교사가 활용한 음악 장르가 일반적인 초등학생의 선호 음악과 일치하지 않았다. 교

사는 생활 지도를 위해 동요(32.02%)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학습 지도의 경우 교육목적으로 제작된 노래를 활용하였다. 두 영역 모두 대중가요의 사용이 동요의 사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의 음악장르 선호도 검사에서 대중가요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동요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Seog, Choi, Park & Sohn, 2011)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의 음악 사용의 어려움을 서술한 내용과 연관지어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중가요는 학생의 흥미를 이끌기에 적합하고 효과적이지만 선정적인 가사가 많고, 학생마다 선호가 분명하여 교육에 이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동요 사용의 선호가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음악 선택은 수혜 받은 학생 입장보다 교사의 사용 목적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선호의 중요성보다 교육환경에서의 적절성이 우선시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생활 지도 영역 중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인성교육 항목에서 음악 활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긍정적 정서 함양과 성격 지도를 위한 인성 교육에서의 음악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들은 음악이 개인 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언어를 활용한 교육보다 음악을 통한 영향을 더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생활 지도에서 효율적인 음악사용을 위해 음악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예방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행동이 발생되면 음악을 사용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며, 문제행동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급 내에서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질책'과 같은 즉각적인 지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Choi, 2009).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지도 영역에서 음악 활용을 격려하기 위한 노래 자원 개발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음악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목적이 동기유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음악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한 연구와 관련된다(Kang, 2009). 노래 부르기 활동은 노래의 자연스러운 반복을 과정을 통해 지식 습득이 일어나며, 즐겁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돕는다. 감상 시 사용하는 클래식이나 뉴에이지 음악은 정서를 안정시켜주고 집중도를 높여주어 표현활동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중가요는 학습 내용이 많고 지루한 수업에 분위기 전환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급 경영을 위한 음악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대한 효과성 및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응답 대상자들이 가장 높게 요구하는 필요는 음원의 개발이었다. 따라서 교사가 요구하는 영역과 방향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음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음악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 Bae, H. K. (2014). *Development of music-math lecture model in math learning for elementar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focusing on spatial concept in math*(초등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수학학습을 위한 음악·수학 수업 모형 개발: 공간개념 중심으로)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 N. S. (2015, May 16). Character education in curriculum and teacher's competency(교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교원의 역량). *Proceedings of 67th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135-160. Retrieved from http://www.ksste.or.kr/bbs/board.php?bo_table=ksste04_01&wr_id=51
- Choi, J. O. (2009). Research on the practi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terventions on problem behaviors(초등교사의 문제행동 중재방법 활용실태 조사연구).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1), 229-248.
- Chong, H. J. (2004). Effect of therapeutic and educational strategies using music on improvement of auditory information processing and short-term memory skills for children with underachievement(학습부진아의 청각정보처리와 단기기억력 향상을 위한 음악의 치료적·교육적 접근).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1), 1-10.
- Jeong, Y. S., Kim, S. Y., Kim, E. K., & Kim, M. H. (2012). Estimating teachers' appropriate workload based on job analysis(직무분석을 통한 교원의 적정 업무량 산정 방안).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2), 397-420.
- Kang, N. A. (2009). The effect of music psychotherapy on improvising motivation of underachieving students(음악심리치료가 학습부진아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6(2), 1-23.
- Kang, S. H. (2010).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expectations in the role of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amo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기대차이 연구).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17(2), 1-25.
- Kim, E. Y., & Kim, H. J. (2015).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distance educational courses for teachers related to competency development(교원 역량 중심의 원격연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8(1), 113-134.
- Kim, M. S. (2014). *Relationship between job competence of primary school teachers a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chools*(초등교사의 직무역량과 학교조직 효과성의 관계)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Kim, S. K. (2011). Perceived counseling difficulti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각한 학교상담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5), 1473-1488.
- Kim, Y. H., & Park, J. E. (2012). Analysis on English vocabulary acquisition by accomplishment levels with an integrated teaching model for English and music through songs(노래를 활용한 영어·음악 통합 수업에서 성취 수준별 영어 어휘 습득 분석). *Primary English Education*, 18(3), 31-63.
- Lee, S. E. (2000). Efficiency of teacher's teaching leadership for open education(열린교육 정착을 위한 교사의 효율적인 수업 지도성).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8(2), 13-33.
- Lee, S. E., Choi, J. Y., & Song, K. O. (2010). An analysis on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need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t different stages of career development(교직발달단계에 따른 초·중등 교사의 연수 요구 분석).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8(1), 127-154.
- Lim, T. Y. (2008). *A survey analysis of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about elementary school guidance*(초등학교 생활지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분석)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inju.
- Ministry of Justice (2012, September 17). Ministry of Justice held concert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with Childfund Korea(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거리로 나서다). *Newswire*. Retrieved from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51109>
- Park¹, H. K. (2014). *The integrated teaching of music and mathematics in 3th grades musical intelligence and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of effect*(음악과 수학의 통합 수업이 초등학교 3학년 음악지능과 논리·수학지능에 미치는 영향)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Park², J. M. (2014).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using music in the elementary mathematics*(음악을 활용한 초등수학 수업자료 개발)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 Park, K. B. (2013).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usic activity,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onality(음악활동에 따른 학업성취도, 성격의 비교분석: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1(1), 51-68.
- Park, N. G. (2008). Analysis on classroom management concept and sphere(초등학급경영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영역분석).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1), 1-32.
- Seog, M. J., Choi, E. S., Park, J. M., & Sohn, M. H. (2011). The status and demand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musical enjoyment for the provision of school

music-arts program(학교 음악예술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예술향수에 대한 실태 및 요구분석).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9(1), 1-22.

You, J. Y. (2013). *A study on the practice of classroom management and its meaning by homeroom teacher on the elementary school*(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실태와 의미 탐색)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게재신청일: 2016. 10. 1.
- 수정투고일: 2016. 11. 10.
- 게재확정일: 2016. 11. 17.

Primary School Teachers' Use of Music for Classroom Teaching and Management

Sung, Su 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rimary school teachers use music for classroom teaching and management and how they perceive the effects of using music in their classroom. A total of 19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primary school teachers and 119 responses were analyzed after excluding four responses from music teachers who are not in charge of a classroom.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 greater number of respondents reported the use of music for classroom teaching than for classroom management. With regard to music use for classroom management, teachers most often attempted to enhance positive emotions of their students by playing children's songs. For classroom teaching, music was frequently used to increase students' motivation for learning. Also, while first through third grade teachers tended to use music frequently for both classroom teaching and management, fourth through sixth grade teachers mainly used music for teaching. Although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 positive influence of music on their children, they reported difficulties in using music in their classrooms. Respondents indicated the needs for music-related training or provision of materials to support teachers for effectively using music.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develop music resource materials that could be readily utilized by teachers in a variety of contexts in primary school.

Keywords : classroom management, classroom teaching, music use, primary school teachers

* Teacher, Kwang-Myung Buk Elementary School,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ppussu@naver.com)